

저는 초등학생이 화장을 해도 된다. 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누구에게나 나이를 따지지 않고 꾸미고 싶은 욕구는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욕구중 아름다움에 욕구 (꾸미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깔려있다.) 그리고 지금은 사춘기가 시작되는 아이들도 있는데 사춘기를 화장으로 풀려하는 학생들도 몇 있습니다.

둘째: 초등학생 때부터 화장을 하고 있거나 화장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부모님들이 더 좋은 화장품으로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 자매) 언니오빠들이 있는 학생분들 거의 외동인 분들은 거의 없는데요. 저도 사실 화장을 하고 어떤식으로 화장을 지워야 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언니가 화장을 어떻게 지우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제가 피부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요. 화장을 하고 클렌징으로 잘 지우니 피부가 더 좋아졌습니다.

셋째: 화장을 하면 학생들은 화장을 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신에 얼굴이 못생겼다고 생각 하시는 학생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얼굴을 못생겼다고 생각하시는 화장을 할때는 좀 지루하지만 화장을 하고 자신에 얼굴을 보면 괜히 뿌듯해집니다.